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제주항공 7C2216 여객기사고
희생자분들을 추모합니다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합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5년도 제23호

한겨레신문 칼럼

수십년째 혁신 없는 체육계 인사는 그만! [왜냐면]

김현수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

여성신문 보도 스포츠인권연구소가 번역배포

아동권·간성·증오범죄... ‘스포츠인권용어집’ 한국어판 나왔다

이세아 여성신문 기자

스포츠월드 보도

한국스포츠에이전트협회 “유소년 축구 지도자 언어폭력·인권침해 근절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김진수 스포츠월드 기자

경남신문 보도 “2012년 이후 감사 받은 적 없어... 운영 책임성·투명성 확보 시급”

“200억대 도체육회 예산, 감사 제도화해야”

김현미 경남신문 기자

월요메일 보도

54년의 발자취, 소년체전이 걸어온 길과 가야할 길

박영기 대구시체육회장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수십년째 혁신 없는 체육계 인사는 그만! [왜냐면]

‘체육인’은 메달리스트 등 엘리트 스포츠선수만을 칭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대한체육회장(유승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하형주), 문화체육부 2차관(장미란) 등 체육계 요직을 엘리트 스포츠선수 출신이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다. 지금껏 그들의 ‘국위선양’이 공직으로 이어져 국민체육 발전에 남긴 것은 스포츠 선진국과는 다소 거리가 멀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학교체육 현장에서는 운동부와 체육 교육이 분리되어 청소년 신체활동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라는 수모를 당했고, 스포츠의 미래를 가늠할 풀뿌리 스포츠 저변은 종목의 생존을 걱정할 지경으로 내몰렸다. 이런 위기에도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 탓만 하는 무능력도 더는 지켜보기 어렵다.

공공체육시설은 이른바 선수들의 전유물이 되어 생활체육인들로 하여금 입맛만 다시고 마는 상황이다. 생활체육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도 문을 활짝 열어젖히지 못하는 공공체육시설과 학교체육시설의 문제점은 지적하지 못하고, 여전히 시설은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는 인식에 묻혀 “국민체육센터 확충”만을 주장하는 문제 해결 방법도 마찬가지다.

세상을 등지는 피해자가 나오고 있는 스포츠 폭력 문제도 자신이 속한 집단으로부터의 지탄이 두려워 그것이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하기를 꺼리고,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는 일을 반복하며, 소나기를 피하는 데만 급급해 왔다. 때문에 이 문제는 체육계 스스로 자정 작용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구태와 잘못된 관행이 고착되는 상황을 맞았다.

최근에는 국회의원, 대한체육회장 가릴 것 없이 ‘출석 인정 결석 허용일수’ 확대, 최저학력제 폐지, 합숙소 부활을 천명하며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마저 거스르는 등, 자신들이 밟고 올라선 영광의 이면에서 삶의 많은 것을 잃어버린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단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스포츠선수로서의 성공의 뒤에서 벌어지는 ‘비참한’ 은퇴 후 삶 따위는 그들의 관심사가 아닌 것이다.

이에 모든 분야에서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복원을 믿고 선출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과거 체육계에 만연한 구태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란다.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매번 그래 왔던 것처럼 전문가가 아닌 ‘메달리스트’를 ‘얹혀’놓는 체육계 인사라면, 정부가 체육과 스포츠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이자 전문성에 대한 무시일 것이다.

체육은 고도의 경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수준의 경쟁도 있고, 국민 건강, 국민통합과도 연결되어 있으며, 청소년들의 전인교육과 올바른 가치관의 형성, 그리고 인권, 가치를 모두 포괄하는 전문분야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을 함께 견인할 스포츠산업은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과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다. 새 정부 체육정책의 밑그림은 그야말로 대통령의 혁신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체육에 대한 전문적 역량과 다양한 구성원들의 요구를 새 부대에 말끔히 담아내는 것이기를 바란다.

스포츠인권 아동권·간성·증오범죄... '스포츠인권용어집' 한국어판 나왔다



스포츠인권연구소가 국제기구인 스포츠인권센터(Center for Sport & Human Rights)의 '스포츠인권용어집(Sport and Human Rights Glossary)'을 번역해 지난 13일 배포했다.

용어집은 스포츠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통의 이해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소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스포츠인권 운동과 관련해 자주 쓰이는 51개 용어가 수록됐다. 용어마다 간략한 정의와 설명, 대체용어 또는 관련 용어, 적절한 사용법을 위한 지침이 제공된다.

스포츠인권연구소는 “스포츠 분야 구성원들과 행위자들이 용어를 명확하고 적절하게 존중을 담아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사용하는 언어와 용어에 대한 성찰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또 “한국에서도 스포츠 분야의 명확하고 적절하며 존중을 담은 용어 사용과 이해가 스포츠인권운동을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해 번역작업을 진행했다”며 “스포츠 및 인권전문가의 감수를 받아 작업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용어집은 파일로 제공되며 언어나 이해, 용법의 변화에 따라 추가 의견과 수정이 반영될 수 있다. 스포츠인권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KOREA
SPORTS
AGENT
ASSOCIATION

한국스포츠에이전트협회 “유소년 축구 지도자 언어폭력·인권침해 근절 위한 대책 마련 촉구”

한국스포츠에이전트협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유소년 축구 지도자의 언어폭력 및 인권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회는 “최근 국내 유소년 축구 현장에서 아동을 상대로 한 언어폭력, 금품 요구, 부당한 훈련 환경 조성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다. 일부 지도자들이 학생선수를 ‘성적을 위한 도구’ 또는 ‘경제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매우 크다”고 17일 전했다.

이어 “특히 1종 및 2종 유소년 팀 지도자들 중 일부는 폭언을 서슴지 않고 특정 선수를 폭염 속에서 방치하거나 팀 전체 앞에서 지속적으로 질책하는 등 아동의 정서와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학생 선수는 단지 기록을 내기 위한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꿈을 키우며 성장하는 소중한 아이들이다. 지도자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 어떠한 형태의 폭력과 착취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협회는 요구 사항으로 ▲대한축구협회의 유소년 지도자의 언어폭력 및 금품 요구에 대한 실태조사 시행 및 조치 ▲지도자 자격 유지 조건에 ‘아동 인권 보호 교육’ 및 ‘폭력 예방 교육’ 이수를 의무 ▲‘미성년자 언어폭력 근절 캠페인’ 및 ‘체벌 금지 선언 운동’ 전개 및 선수 보호 중심의 문화를 정착 등을 발표했다.

협회는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는 유소년 선수들에게 달려 있다”며 “아이들이 축구를 통해 꿈을 키우는 과정에서 상처받지 않고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하다”고 힘줘 전했다. 이어 “대한축구협회, 교육청, 학교, 학부모, 그리고 축구계 전체가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이다”라고 했다.



“200억대 도체육회 예산, 감사 제도화해야”

매년 막대한 도비가 투입되는 경남도체육회에 정기 종합감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도의회에서 나온다.

박병영(김해6·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제424회 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남도체육회와 관련, 매년 운영 전반에 나타나는 예산집행 부적정, 회계관리 부실, 인권침해 문제 등은 도민의 신뢰를 위협하고 있다. 매년 막대한 도비가 투입되지만 2012년 이후 도 감사위원회 차원의 종합감사는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025년 기준 경남체육회 총예산은 약 275억원, 이 중 75.3%인 207억원가량이 도비 보조금으로 구성돼 있다.

박 의원은 “소관부서 보조금 정산검사에서는 전지훈련비와 고교체육 육성비의 부적정 집행 문제가 반복해 지적되고 있고, 지난해 도의회에서는 차기 연도 이월금과 다음 해의 전년도 이월금이 맞지 않는 회계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게다가 지난해 7월 발생한 체육회 소속 감독의 선수 폭행 사건은 올해 뒤늦게 알려지면서, 가해 감독은 9개월이 지나서야 사직서를 냈고, 피해자는 선수생활을 포기했다”면서 체육회 내부 관리 시스템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경남체육회가 체육 진흥을 넘어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운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기 종합감사 제도화 △공공기관 수준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체계 마련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규정 정비 △도 차원의 독립적인 신고 창구 및 피해자 보호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어 7명 의원의 추가 5분 자유발언에서 백태현(창원2·국민의힘) 의원은 노인 일자리 개발 설계를, 이영수(양산2·국민의힘) 의원은 농협의 경제 사업 확대를 통한 조직 현신을 주장했다. 김태규(통영2·국민의힘) 의원은 고수온 피해를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과 지자체·수협의 현장 지도점검 강화, 포화상태에 이른 양식어업권 감축 제안을, 노치환(비례·국민의힘) 의원은 창원국가산단 조성으로 내쫓기듯 이주한 창원 원주민들을 위한 기념공간 조성을 촉구했다. 류경완(남해·민주당) 의원은 재생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해 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과 나누는 모델 도입을, 권원만(의령·국민의힘) 의원은 경남소방교육훈련장의 소방학교 승격, 장진영(합천·국민의힘) 의원은 생활인구 확대 전략으로 서부경남에 지역민과 교류하는 스포츠 빌리지를 조성을 제안했다.



54년의 발자취, 소년체전이 걸어온 길과 가야 할 길

매년 5월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땀과 열정을 쏟아내는 무대다. 올해로 54회를 맞은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지난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경상남도 김해시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대구시 선수단은 육상 등 35개 종목에 1,177명이 참가해 총 94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지역 체육의 저력을 다시금 보여주었다.

전국소년체육대회는 1972년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나라도 튼튼"이라는 구호 아래 스포츠소년단 창설을 기념해 열린 '전국 스포츠소년단 대회'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당시 초등부 11개, 중학부 19개 종목으로 시작된 대회는 기초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함양하고, 유망 선수 조기 발굴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1975년 제4회 부산대회를 기점으로 명칭을 '전국소년체육대회'로 변경하고, 시·도 개최의 형태를 갖추며 본격적인 전국 단위의 체육 행사로 발전하였다. 당시 충청남도가 종합 1위를 차지하는 등 지역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며 유망주 육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성장통도 분명 존재했다. 시·도 간의 과열 경쟁, 수업 결손, 진학 문제, 그리고 개최지의 재정 부담 등 부작용이 대두되며 1989년부터 1991년까지는 지역 단위로 축소 운영되기도 했다. 이는 전국 규모 대회의 축소가 체육 활성화와 우수 선수 발굴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결국 1992년부터 다시 전국 대회로 부활하게 되었다.

그 후에도 변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졌다. 1994년부터는 전국체전을 개최한 시·도가 이듬해 소년체전을 개최하도록 하여 준비 여건을 효율화했고, 2010년에는 여름방학 기간 중 개최를 시도하며 학습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폭염과 장마 등 계절적 문제로 인해 다시 5월 개최로 돌아가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의 출발점으로서 오랜 기간 기능을 해오고 있다. 이 대회를 통해 발굴된 선수들이 전국체전, 아시안게임, 올림픽으로 이어지는 국가대표 연계 육성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 이면에는 성적 지상주의와 선수 인권 침해, 체육계 내 폭력 등 그늘도 존재해 왔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해 일부 종목이나 지역에서는 선수를 구성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제약도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또 전국소년체전을 폐지하고 고등부를 전국체전에서 분리시켜 초등, 중등부와 함께 전국학생체전으로 전환하자는 논의도 있었다.

이는 경기력 중심의 체육을 지양하고, 보다 균형 잡힌 학생 체육 활성화를 꾀하자는 취지에서 제기되었지만, 지역 체육 기반의 약화와 조기 선수 육성 시스템의 붕괴 우려로 아직까지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국소년체전은 그 존재 이유와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 단순히 우수 선수 발굴을 위한 대회를 넘어, 모든 학생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신체와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방향 전환과 대회 참가와 학업의 병행 시스템 속에서 운영 전반의 재구조화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역 간 인프라 차이로 인한 접근성 문제나, 종목 간 지원의 불균형 문제도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

이제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승패' 중심의 구도를 넘어, '과정' 중심의 교육적 가치와 '참여' 중심의 포용성을 담아야 할 때다. 단 한 명의 메달리스트가 아닌, 모든 아이들이 스포츠를 통해 웃고 성장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꿈나무들의 축제, 그리고 한국 체육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주간 스포츠 소식

한궁, 초·중·고 장애인 체육 교과서 등재... 체육 교육 패러다임 전환

<https://www.sportsworldi.com/newsView/20250623508573>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범위 확대...7월부터 접수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23580030>

국힘 대전 서구의원, '체육예산' 삭감 민주 서구의원 규탄

<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506230039>

“정부 바뀔 때마다 체육정책 오락가락...학교체육 '전인교육' 필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04104.html

무주 체육시설 전국 체육인들 '엄지 척'...각종 대회 잇달아 열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62209275002235?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광주시체육회, 국제스포츠교류 국비 공모 선정

<https://gj.newdaily.co.kr/site/data/html/2025/06/21/2025062100063.html>

경계 허문 장애인·비장애인... 경기도어울림체육대회 폐막

<https://www.kyeongin.com/article/1743794>

건강한 노후를...부산시 제45회 노인생활체육대회

<https://www.yna.co.kr/view/AKR20250620019700051?input=1195m>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생활체육이 도민 일상의 즐거움 돼야"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50622010010569>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